

주의 공현 대축일

기도서 237면 (다해)

제1독서: 이사 60, 1-6

제2독서: 에페 3, 2-3a, 5-6

복음: 마태 2, 1-12

숲 정 이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 10-11).

강 련

소 리

“그 집 얼마짜리야?”

김 진화 신부 / 전동보좌

성탄의 요란스러움과 들떠있던 연말연시 기분을 이제 좀 가라앉혀 봅시다. 움직이고, 웃고 떠들어대다간 자칫 오늘은 만민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아기예수님을 못알아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제각기 눈(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쁘고 넓은 정원을 가진 집을 바라보면서 “그 집 얼마짜리야?”라고 물을 수 밖에 없는 어른들의 눈(관심거리)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어린 왕자’ 처럼 뭔가 본질적인 것을 보는데는 정확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나쁜사람 눈에는 안보여!”라는 아이들의 말처럼 착한 눈을 가져야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 입니다.

겸손하고 초라하게 시골동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맨먼저 알아보았던 사람들은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깨어있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쁜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이방인도 죄인도 모두 함께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구세주를 기다려왔기에, 초라하고 겸손하게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끝내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화려하게 꾸며진 구유에 곱게 웃는 예수님을 모셔 놓고 예수님이 그곳에만 오시리라고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린다면 이미 초라하게 보잘 것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봐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맨먼저 알아 보았던 그 목동들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소외되고, 버림받고, 옳은 일을 하다 간힌 사람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안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눈’을 크게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쭙잖은 소리말라!”

광주민주항쟁·5공비리 등 생방송 청문회로 연발 정국을 상식했던 그 화려한 잔치상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대한 무겁고 답답한 체증이 가시지 않은 채 또 한해를 맞았다.

‘격동의 80년대’의 불씨인 쉼씨가 권좌에서 물러난지 1년여. 눈물바람으로 은둔한지 한 달도 넘었으나 그 어둠의 상흔은 여전히 우리사회 도처에서 진동하고 있다. 전씨와 그의 공범자들은 우리사회가 올바른 궤도로 진입하는데 교약스런 걸림돌로 남아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도 ‘정치보복을 배제하고 안정을 위해 전씨를 처벌(구속조치 등) 않는 게 필요하다’고 송년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어쭙잖은 소리다. 먹물을 쫓겨 쫓는 자의 시야를 가려놓고 도망치는 꼴뚜기처럼 국민들의 감상을 유발시켜 과거의 결과를 호소하려했지만 그건 넌센스다.

더 이상 허튼 수작하지 말라. 그 정도의 청문회로 적당히 얼버무리면 오산이다. 독재의 칼날로 인해 피멍은 가슴을 쥐어짜고 통분하는 사람들이 이땅 어디에도 두 눈크게 뜨고 살아있다. ‘안정’의 가름은 국민이 한다. 전씨, 그가 연회궁을 떠나며 국민앞에 약속한 것처럼 뼈를 깎는 참회를 해야 한다. 역사를 이끄는 국민은 적법한 심판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받아들여야만이 현 대통령도 반쪽정권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정부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6.29이후 새세대’라는 명분을 민중으로부터 직접 받게 될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그 진실을 토대로 오늘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그 역사를 거울삼아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 성탄절 김수환 추기경의 메시지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신중한 첫 걸음을 재촉해주는 귀한 말씀이다.



주의 공현(公現)

공현이란 말은 '나타남, 나타내어 보여줌'이란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줌으로써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다.

옛부터 교회는 이 축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세 가지의 중요한 신비를 기념함으로써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랑이심을 세상에 알린다.

이상한 별의 인도로 동방의 세 박사(삼왕)가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마태 2,11).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 예물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상징하고 있다(마태 2, 1-12 참고).

황금은 모든 금속 중에 가장 귀한 것이고 변치 않으며 찬란한 빛을 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따라서 '왕으로 나신 분'께 드리는 마땅한 예물로서 예수가 비록 아기지만 왕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이다.

유향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에서 경신행위로 드리는 것인데 예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왕이지만 죽을 수 있는 참 사람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세 박사의 예물은 예수는 신인(神人)으로서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주의 공현은 주의 공현 다음 주의 세례 축일에서도 드러난다.

예수께서 사생활을 마치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모양으로 성신이 내려오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7)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알려주셨다.

세례자 요한의 증인은 주님을 드러낸다. 하느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닦을 선구자 요한을 미리 보내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인"(요한 1,34)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할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요한 1,30).



성서와 함께

33. 헤로데 가문과 팔레스티나의 통치(B) : 헤로데 안티파스와 필립보

BC 1년 헤로데 대왕이 죽자 그의 왕국은 세 아들, 즉 아르켈라오와 안티파스와 필립보 사이에 나뉘어졌다. 4복음서엔 이들의 이름이 단순히 헤로데로 소개되기 때문에 아버지 헤로데와 혼동된다. 특히 둘째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와 혼동이 제일 심하다.

안티파스는 예수의 선교 중심지였던 갈릴래아와 요르단강 동부 지역의 베레야를 차지하였다. 그는 원래 로마의 총독으로서 갈릴래아 호수만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티베리아시를 건설하였다. 이 도시 때문에 갈릴래아 호수가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리운다(요한 21, 1). 오늘날 티베리아시는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온천을 지닌 휴양지 및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안티파스는 첫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이복동생 필립보의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율법을 거스려 중죄를 지었다. 세례자 요한이 성식으로 이를 단죄하였고 이 때문에 안티파스는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 처형 시키기까지 한다(마태 14, 1-6; 마르 6, 14-29).

안티파스는 예수에 관한 소문과 그가 행한 기적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마르 6, 14), 부가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재판에 어느 정도 간여한 것으로 나타난다(루가 23, 7-12). 안티파스를 두고 예수는 여우라고 일컬었는데(루가

13, 31 이하), 이는 안티파스의 교활한 성격을 잘 나타낸 별명이라고 본다.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안티파스는 모든 지혜와 속임수를 다 동원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 음모와 오만에 오히려 안티파스 스스로가 말려들어 결국 기원후 39년 그가 것처럼 충성을 바친은 로마 권력에 의해 폐위되었다.

안티파스의 다른 통치영역인 요르단강 동권의 베레야는 신약성서에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필립보는 악명 높은 헤로데 가문의 왕들 중에서 이례적으로 34년 그가 죽을 때까지 현명하고 부드러운 정책을 펴나갔다. 그는 갈릴래아 호수 북동쪽을 차지하였다. 예수와 그의 제사들에겐 필립보의 지역이 갈릴래아보다 더 안전하였던 것 같다. 갈릴래아에서 필립보의 영역으로 피신하려면 배로 건너가면 되었다(마르 6, 45).

필립보는 예수의 제사 필립보와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도시 베싸이다를 호숫가에 창건했고, 북쪽 내륙 지방에 필립보의 가이사리아시도 건설하였다. 이 가이사리아는 안티파스가 사마리아에 세운 가이사리아와 구별된다.

예수는 한 때 필립보의 가이사리아에 피신하여 전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베드로의 결정적인 메시아 고백을 들었다(마르 8, 27)

롯데·마티스 여성하이패션

오봉기념 50%~60%세일
이 강현(비오로)
서 금순(세시리아)
코오봉쇼핑 2층(남부서장내)
☎(재)83-4375, (사)6-0057

정신과학세미나

주제 : 고도의 두뇌 및 정신력 활용법
효과 : 스트레스해소, 수면조절, 신앙심화, 기억법, 집중력
정신력을 통한 질병조절, 상대설득법, 습관조절, 가정
정을 행복하게 하는 테크닉 등.
일시 : 1월 17일(화), 1월 20일(금) 오후 2시, 7시
장소 : 전주 가톨릭센터(대강당) 참가비 : 1,000원
연사 : 김 중 배 박사(말시아노)

한 꿀 봉

품질보증 : 사 목 회
문의처 : 수류천주교회 구판장
☎ (0658) 43-0581

교 구 소 식

1. 인사위원회: 10일 오전10시30분 교구청
2. 부제·사제 선발예식: 1월8일 10시 공식미사 장소-숲정이 성당 대상-부제 사제 사품예정자
3. 본당선교 전례부장 차장연수회: 15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4. 사제서품식: 20일 오전10시30분 중앙성당
5. 「선택」전주2차주말: 1989.1.27(금)~29(일) 장소-수류교육관 접수문의-교육국(85-0041) 대상-미혼 젊은이, 대학생
6. 성소자 피정: 1월25-26일 장소-수류교육관 집결-25일(수) 오후2시 가톨릭센터 대상-고·대 일반 회비4,000원 준비물-미사·세면 필기도구
7. 주소변경: 인후동성당-전주시 인후동1가 586-11 전화-사제관(86-8876) 사무실(86-5022) 수녀원(86-8875)
8. 테클라성소자모임: 오늘 오후2시 장소-성바로로 딸 수도회(성바로로서원2층)수도 성소에 관심있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9. 청년 연합성가대 성가연습: 서품식 미사 성가연습 9일부터 오후7시30분 가톨릭 센터에서

가톨릭교리 신학원 병설 성바로로딸 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부 신입생모집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 내 용 : 신구약성서를 체계적으로 나누는 2년과정
- 사 격 : 고졸이상(교과조월)
- 구비서류: 입학원서, 증명사진3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서교부 및 접수: 89년 1월~2월 7일 까지
- 원서대: 3,000원(원서우송시 3,600원) 원서발매: 전주 성바로로서원

두려움

세계 성체대회를 앞두고

하느님의 섭리 은행

얼마 전 '나눔의 묵상회'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어느 신문이 알려 주었다. 이 묵상회 회원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털조끼 같은 선물을 나누어 준다고 한다. 여성 회원들이 모여서 손수 털실로 조끼를 짜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이 활동에 가담하는 이도, 또 이 활동에 의해 선물을 받는 이도 어떤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 자유로이 사랑을 주고 받는다고 한다.

실제로 무엇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은 말뿐인 사랑보다 정말로 진실 되고 힘이 있다. 우리가 성당에서 성체를 받아 먹는 것은 그 알파한 빌떡으로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을 씹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서로 나누라고 하시면서 결국 '나눔' 자체를 권고하신 것이다. '사랑으로 나누기'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이것은 나의 몸이며 피"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고 싶으실 때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하시지 못한다. 결국 하느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 나누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무엇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곧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다.

한때 브라질의 헬터 까마라 대주교는 '섭리 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가난과 소외 속에서 절망한 이들에게 실제로 힘이 될 돈이든가 또 무엇을 그냥 주는 것이다. 조건도 공치사도 없이 주고 끝내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섭리이다.

그 '섭리 은행'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우한 노인이나 고아에게만 주지 말고, 사회에서 할일이 많은 나이에 좌절하고 희망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건없이, 공치사도 없이 말이다.

요십이(805) 김병오



신규직원채용공고

1. 채용인원: 남 0명
2. 응시자격: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2) 추산 부기 자격증 소지자
3) 18세이상 28세 미만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전형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 및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
2)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3) 생활기록부 사본 4) 자격증 사본
5. 접수기간: 89. 1.9~89. 1.17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

전주시 서서학동 48-6
☎ 6-8123~4

고도의 기술, 선명한 색채재현

25분 완성

전북칼리현상소

대표 오 희웅(양부로서원)
전주시 고사동1가 인접메시 남쪽(오거리) ☎ 83-5335

교 사 초 빙

1. 과 목 : 1. 국민윤리(부전공: 영어, 국어) 수학, 역사, 과학, 음악, 영어(교도교사자격증 소유자 한정)
② 영어, 수학, 생물, 농업(15세 미만)
2. 구비서류: 이력서 1부, 호적등본 1부, 자격증(사본) 1부, 대학교(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제출처: ① 성신여자중·고등학교 서무과(84-3214)
② 해성중·고등학교 서무과(3-2958)
4. 제출마감: 1989년 1월 11일 오후 5시

학교법인 해성학원

"발표력을 기릅니다. 웅변을 배웁시다"

'89.유치부 원아모집. 방학특강반모집

- 호남웅변종합학원 (구 세종로터리) ☎ 3-3284
- 새호남웅변종합학원 (전주역 옆) ☎ 4-3948
- 효지웅변종합학원 (효지쌍용APT 옆) ☎ 83-8331~2

원장 유병철(베드로) · 원감 박경애(안젤라)

□ 이리지구 본당소식 □

* 승학동

사제관 51-5340 주임신부 이태주
사무실 3-9713 사목회장 오봉익

- ※ 89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제 자매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1. 꾸리아 윌레회 : 당일 공식미사후
 2. 예비자 교리반 휴강(1월중) : 새예비자 접수중(사무실)
 3. 89년도 교무금 사전 신청서 미 제출하신분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336세대중 약100세대 미신청)
 4. 남성30차 꾸르실로 교육 참가자 : 백종현(필립보) 1월9~12일까지 많은 응송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 드립니다.
 5. 꾸르실로 교육 수강 희망자 접수중 : 남성31차(23~26일까지) 남성32차(2월23~26일까지) * 자세한 사항 사무실에 문의
 6. 본당 애병회는 전신자 가정이 월500원(년5,000원)의 회비를 봉헌해 주시는 사랑의 결실이 모여 이루어 집니다.
 7. 반모임 안내 : 모현4반-10(화) 오전10시 라명순(살비아)씨백 모현A 9동205호 송학4반-9(월) 오후2시 김 벨라벤타씨백 모현 9반-9(월) 오후2시 이미선(모니카)씨백 송학3반-11(수) 오후 7:30 이수암(프란치스코)씨백 송학5반-11(수) 오후2시 박길순(셈바)씨백 송학6반-9(월) 오후2시 최옥래(테레사)씨백
 8. 축 결연! : 8(일) 오전12시 신랑-황일수(프란치스코) 신부-김영선
 9. 금주청소담당 : 모현8,9반 화요일
 10. 금주전례 : 해설-시원기 독서①박봉기 ②김영수
기도-이종구 부부
차주전례 : 해설-송기봉 독서①이재길 ②조국현
기도-이정준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29,810원 □ 교무금 : 282,000원

* 신동

사제관 54-6313 주임신부 박종삼
수녀원 54-1827 사목회장 최학렬
사무실

- ※ 1월은 예비자 인도의 달 : 한세대 한분씩 봉헌합니다.
1. 오늘은 주의 공현 대축일 : 공식미사전 삼왕구유에 모시는 예절
 2. 꾸리아 윌레회 : 오후2시 소성당에서
 3. 88년도 교무금 완납및 89년도 교무금 신청에 정성을
 4. 성탄 영제자 일월중에 첫교백성사 있음 : 미사 전후에
 5. 오늘부터 성탄영제자 교리(성사편) : 공식미사후(1월달만)
 6. 청소담당 : 하늘의 분Pr. 김약외과 Pr(9일)
 7. 금주전례 : 해설-(공식)김봉건 (저녁)이의식
독서①정진수 ②조우원 봉헌-장재환 김선례부부
기도-박찬희 이보래 자매
 8. 차주전례 : 해설-(공식)이귀영 (저녁)노대식
독서①임장수 ②성기홍 봉헌-김정근 조정현부부
기도-유이준 박성희 자매

* 영등동

사제관 54-2202 주임신부 안복진
사무실 52-2240 사목회장 송상섭

1. 평신도 강론 : 사목회장님
2. 구역 형제회 : 10일 화요일
3. 애덕회·성심회 피정 : 장소-수류천주교회 교육관 일시-17일~18일 회비1,000원
4. 복사단 교육 : 13일 금요일
5. 꾸르실로 교육 : 황덕구 아우구스티노 형제님 9~12일 신자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 학생회 회장단 선출 : 회장-김영복(요셉) 부회장-박은희(글라라) 김경순(요한)
7. 수녀원 선출 : 김가서30,000 장광숙50,000 임인규50,000 정영자30,000 김두애50,000 익명200,000 이선화50,000 익명30,000 안혜숙30,000 신영희50,000 익명50,000 백복화100,000 익명20,000 박순영10,000 임길순20,000 익명30,000 익명30,000 유영관200,000 신선순50,000 김영호100,000 장세인100,000 방성자30,000 정광택500,000 누계44,380,000원

8. 금주청소봉사 : 9일-하늘의 물 14일-존경하옵 그릇
9. 금주전례 : 해설-김정남 독서①김경환 ②분운성
기도및 봉헌-이장백씨 가정
차주전례 : 해설-민철기 독서①인용영 ②이비후
기도및 봉헌-임인규씨 가정
10. 감사헌금 : 남중동 이용성20,000원 영동10구 신규순10,000원
11. 수녀님 피정 : 조애리카수녀님 4일부터 13일까지 기도부탁드립니다.
12. 예비자 입교식 : 2월 첫주-예비자 입교에 많은 관심을.
□ 지난주봉헌금 : 700,670원 □ 교무금 : 260,000원
□ 감사헌금(88년) : 84,400원

* 주현동

사제관 54-9030 주임신부 범영배
사무실 2-3993 사목회장 김한기
수녀원

- ※ 1월은 예비자 인도의 달 : 1인1명씩 인도하여 신사의 의무를 다 합니다.
1. 금주성서 : 관관기17,1~13 요한외 복서록13,1~18
 2. 성모회, 35회 형제회 : 오늘 공식미사후
 3. 구역영제회 1조 : 11일 저녁7시30분 동산2,4,5구 평화1구 인화3구 부용 금강동 대장촌 식전 주현3구 (갈산동은 월요일) 본당 미사-오전9시 구역미사-주현2구
 4.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성바오로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5. 금주청소 : 하늘의 분Pr
 6. 금주전례 : 해설-고신해 독서①이동근 ②최윤정
기도-김종연 봉사-김경포 부부
차주전례 : 해설-김동수 독서①이수만 ②김화관
기도-박순덕 봉사-장한태 부부

* 창인동

사제관 52-9073 주임신부 문정현
사무실 2-2325 보좌신부 이동홍
유치원 2-1028 사목회장 김은홍

- ※ 수녀원 선출을 위하여 우리의 정성 다합니다.
1. 셋별 꾸리아 윌레회 : 공식미사후(6호실)
 2. 성기연습 : 1월9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7시30분
 3. 대의원 윌레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15일)
 4. 사목회상임위원회 : 1월14일 오후7시30분
 5. 남성 제30차 꾸르실로수강 : 전경애(요셉) 김상석(펠릭스) 1월9일~1월12일까지
 6. 전신자 1인1전교 : 예비자 인도(1월중 입교식에정)
 7. 제단제가입권유 : 1월11일까지 교회활동 참여
 8. 지속적인 철야성체초배 : 차례지오 단원 빠짐없이 참여
 9. 교구연수계획 : 성교 전례위원장 부위원장 연수 1월15일
 10. 사회복지사업 1인1가정 가입권유 : 작은자매의 집, 꽃동네 보리피리회동
1월29일은 구라주일 이웃을 위해 정성된 기도를.....
 11. 89년 교구군 신립 애령회비(년5,000원) 납부는 신자 가정의부
 12. 원장수녀님(김베다) : 피정및 휴가 1월10일부터(10일간)
 13. 초중고자녀들의 신앙교육 : 89년 부모님들의 관심속에 교육참여
 14. 청소담당 : 자비의 모후(9일) 신비로운 장미 동신자의 모후(14일)
 15. 금주전례 : 해설-이미자 독서①박종삼 ②김황호
기도-장인2구
차주전례 : 해설-정순기 독서①권정하 ②오인상
기도-장인1구
- 첫미사 : 최명식 저녁미사 : 배애자
"사랑으로 가진바를 나누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 925,700원 □ 교무금 : 799,000원